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부터 하자” 몸 단 원자바오

구체적 협상 방안 첫 제안

중국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체결을 위해 ‘선(先)협상개시 선언, 후(後)쟁점 타결’이란 진전된 카드를 던졌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을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둠), 선이후난(先易後難·쉬운 것을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함) 등의 수사법을 동원해 협상을 촉구해 왔으나 협상 개시 선언이라도 먼저 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협상 개시 선언을 먼저 하기보다는 사전에 (농수산물 등) 충분한 고려 사항을 검토하지 않으면 원만한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측 입장을 (원 총리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원 총리가 한·중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중 FTA가 (한국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FTA 정책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중 FTA 협상) 추진 일정이 정확히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입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한반도 전략 차원에서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이라며 “내년에 한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올해 안에 서둘러 FTA 개시 선언이 가능하게 하려면 중국이 한국 측에 민감한 현안에서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중 양국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 연구를 시작했으나 농수산물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방중 합의에 따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중국을 방문해 천더밍(陳德銘·진덕명)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FTA 현안을 통상 장관급 차원에서 처음 협의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zhang@joongang.co.kr

“농수산물 이견 좁힌 뒤에 하자”

김항식 총리, 완곡히 거부

다. 한국 정부는 농수산물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이견을 충분히 좁힌 뒤 협상을 시작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이어서 조기 협상 개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항식 총리는 14일 베이징에서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날 원자바오(溫家寶·온가보) 총리와 의 한·중 총리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 총리는 한·중 FTA에 대해 “협상 개시를 먼저 선언한 뒤에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자”고 김 총리에게 제안했다. 김 총리는 “우리가 바라는 좋은



김항식 원자바오

zhang@joongang.co.kr



“비상하는 독수리” 공중침투를 저지하고 적을 타격하는 공군 최대 규모의 종합전투훈련인 ‘Soaring Eagle’(비상하는 독수리) 훈련이 14일 실시됐다.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소속 전투기들이 활주로를 달리고 있다. 21일까지 계속되는 이 훈련은 F-4, F-5, KF-16, F-15K 전투기와 RC-4C 정찰기 등 5개 기종 38대의 항공기가 참가했다. [공군본부 제공]

‘MB특사’ 세 번째 ... 박근혜 유럽 간다

‘신공항 마찰’ 때 요청 수락

네덜란드·포르투갈·그리스 28일부터 9박10일간 방문

박근혜(사진) 전 한나라당 대표가 28일부터 9박10일간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네덜란드·포르투갈·그리스를 방문한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브리핑에서 “박 특



사가 우리나라와 올해 수교 50주년이 되는 네덜란드·포르투갈·그리스를 방문, 3국 지도자들과 양국 협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베아트릭스 네덜란드 여왕, 아니발 카바쿠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

카를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사단엔 한나라당 권영세·권경석·이정현·이학재 의원이 포함됐다. 권영세 의원은 중립 성향이나 상대적으로 박 전 대표와 가깝고 권경석 의원은 친이계로 분류된다. 박 전 대표가 동행할 의원들을 직접 골랐다고 한다.

정 수석은 “지난달 하순 박 전 대표에게 특사를 맡기고 싶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전해졌고, 이달 초 박 전 대표가 흔쾌히 ‘가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박 전 대표 측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던 시점에 특사 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박 전 대표가 특사로 외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가는 게 세 번째”라며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4대 강 지류 살리기 신규사업 아니다”

20조 들인다는 일부 주장에

정부 “이미 19조는 배정된 것”

정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지류 살리기 기본구상’의 대통령 보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14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류사업’을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13일 발표한 ‘지류 살리기 기본구상’이 불필요한 오해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수질 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 정비사업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류 살리기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22조원의 4대 강 사업에 이어 2단계로 20조원의 지류사업에 추가로 벌이는 것이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정부 일각에서 추정된 20조원의 지류사업에는 올해와 내년의 4대 강 예산으로 잡혀 있는 4조원이 포함돼 있다. 중복 예산이 됐다는 얘기가. 이를 제외한 16조원에 정부가 2010~2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수질 개선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지류 관련 사업으로 이미 책정해 놓은 15조원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 관계자는 “수질 개선사업 등 대부분의 지류 관련 사업은 정부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도 2조~3조원의 지류사업 관련 예산을 책정했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류 살리기 기본구상을 통해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예산 당국에 매년 2000억원 정도씩 5년간 모두 1조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인테리어, 건축 직원 모집 공고

(주)지오인터내셔널은 Global화 된 중소기업으로서 1986년 설립 이후 우수한 전문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인테리어, 건축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5년간의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해외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오와 함께 나아갈 진취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채용직급	인원	응시자격	우대사항
-인테리어, 건축 시공 -인테리어, 건축 설계 -공 무 / 견 적 -관 리 / 회 계 -비 서 -마케팅	임 원 경력사원 신입사원	00명	관련학과 학력 소지 해외여행 경력사유가 없는 자 (해외근무 가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영어 가능자 실무경력 3년 이상

2.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자원분야, 희망연봉, 직급, 연락처 명기)
나. 자기소개서(실무경력 상세기술)
다. 포트폴리오(설계지원자)

3. 전형방법
가. 1차 서류 전형
나. 2차 실무진 면접
다. 3차 실증 면접
라. 전형일정 : 접수 후 개별 통보

4. 접 수
가. 접수기간 : 2011. 04. 15(금) ~ 2011. 04. 30(토)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 및 우편 접수(발송일자 04. 30. 한)
다. 접수서류 : http://admin.ziointl.net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라. 담 당 자 : 경영지원실 유희석 과장 (ybs@ziointl.net)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4-3 프라자654빌딩 3층 (주)지오인터내셔널 Website : www.ziointl.net

ZIO ZIO int'l ZIOVI design ZIO d&c ZIOCAM e&c
KOREA VIETNAM VIETNAM CAMBODIA

강촌IC 2분 토지 매매 토지주 직접, 9만원부터

서울출천간 고속도로 이용시 강일IC에서 30분 거리이고, 경춘북선전철 개통으로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이다. 위치는 강촌IC에서 차량으로 2분거리로 입지 여건이 우수한 정남향 필지이다.

현재 주변으로는 복합전력단지, IT기업입주, 5개 골프장건설 등 각종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고, 입주 후에는 미니신도시 급으로 급부상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한 시가화 예정용지가 인접하여 향후 높은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

제 땅 앞으로 최근에 토목공사 및 인허가를 득하여 은퇴후 전원주택, 주말농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 여러모로 안성맞춤이다.

제가 직접 소유한 토지로 주변분들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니 지금이 사두기 좋은 기회이다. 방문시 필히 예약바라며, 필지는 한정돼 있다.

계약시 지침물 : 신분증, 도장, 계약금10%

문의 : 033-264-9335

분양! 양평 전원주택의 명가 미리내 그린카운티

36만여㎡의 대자연 위에 펼쳐지는 감동의 파노라마
골프 승마 광천사우나 농촌체험장 텃밭 등
귀하게서 동경해온 꿈의 전원생활이 시작됩니다!

1 입주민만 출입이 가능한 완벽한 보안시스템!
서울에서 1시간대, 용문전철역, 현재 건축진행중!
직접 방문해서 샘플하우스를 확인하세요!

- 국내 최초 게이트형 전원단지, 완벽한 시큐리티시스템
- 조경관리, 주택관리, 기사도우미 등 단지관리시스템 구축
- 병원, 마트, 금융, 교육시설 1km이내
- 승마, 골프, 스파, 각종 운동시설, 350m 암반수 제공
- EM공법(항산화공법)으로 새집증후군 95% 이상 감소

네비게이션 현장: 경기도 양평군 자평면 월산리 582 미리내캠프
www.mirinaevillage.com

문의 : 031-774-3132(샘플하우스 오픈)